

052922 주일설교 사도행전 16:16-25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일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지난 주 24 일에 텍사스에 있는 Robb/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인해 19 명의 초등학생들과 2 명의 선생님이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총격 사건의 피해자와 그들을 사랑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6 장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 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2 차 전도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동행 여부를 놓고 바나바와 서로 다투고는 헤어졌습니다. 대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전에 방문했던 곳들을 돌아보았는데, 디모데와 누가도 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요.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말하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원래 계획을 바꾸어 유럽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곳에 유럽의 첫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 옷감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죠.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한거예요.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 장에 귀신들려 점치던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그 소녀를 통해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돈을 받던 주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접치는 여종과 감옥의 간수 가족으로 시작된 말그대로 정말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구요, 매우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기쁨, 감사, 선교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바울 선교에 후원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고 지속적으로 선교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다름아닌 “감사” 였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삶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 장에 보시면, 그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 쫓은 후에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곤장을 치게 한 후에 감옥에 가두게 하였죠. 단단히 가두어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차고를 채워 도망할 수 없도록 단단히 묶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하필이면 일이 이렇게 꼬기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하필이면 한참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음먹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반응은 크게 두가지예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다짐하고 그 선한 일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구요, 다른 반응은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에 힘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낫선 땅에 들어가 전하다가 오해받고 매도 맞구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쯤되면 “내가 다시는 하나봐라! 혹은 하나님, 제게 어찌 이리할 수 있소?!” 라고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밤중에 피투성이의 몸으로 옥중에서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 열정이 식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연한 선택을 취하지 않고,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명히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선택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필이면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며 찬양으로 감사를 고백했더니, 이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죠. 그 때 바울이 간수를 불러 죽지 말라고 말렸구요, 죄수들 가운데 아무도 탈출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 후에 간수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때 바울이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은 간수와 그의 가족은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곳을 치료해 주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른 감사의 찬양이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필이면 옥에 갇혔지만, 옥중에서 부른 감사의 찬송은 그들 자신들을 옥중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 (J. Scriven)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 여년 전인 1819 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직업군인이 되고자 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포기하고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구요,

이 기간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교직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가 24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생에 있어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식 하루 전날 그의 약혼녀가 강위로 난 다리 위를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강으로 떨어져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사고를 강 저편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겠죠.

그 후 그는 아일랜드를 떠나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 가정교사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엘리사로체라는 여인과 40 살에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그녀는 폐렴에 걸리게 되었구요, 결국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조셉 스크리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약혼녀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통 속에서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멀리 떨어져 병환 가운데 있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이 찬송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신으로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는 이렇습니다:

“1.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3.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원망과 한탄이라는 당연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기도와 찬양이라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 또한 기가막힌 웅덩이에 빠졌지만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든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